

호남 추상미술 선구자 양수아 화백을 만나다



양수아 화백의 다양한 드로잉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미로센터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젊은 시절의 양 화백.

드로잉으로 만나는 '무제와 행위' 10일까지 예술의거리 미로센터 작가 독창적 예술 세계·삶 조명

양수아(1920~1972) 작가는 사실주의와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 회화를 구축했다. 구상회화뿐 아니라 드로잉, 크레용, 영포트렐 회화에 이르기까지 탐험하면서도 강렬한 색과 선으로 표현했다. 작품에는 표현주의적 감성은 물론 내면의 고통, 존재의 흔적까지도 담겨 있다.

보성 출신의 양 작가는 일본 가와바타 미술학교를 졸업 후 광주사범대 교수와 전남 미술계 리더로 활동했다. 많은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지역 미술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호남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일컫는 양수아 화백을 만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화제다.

예술의거리 미로센터 1층에서 오는 1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명은 '드로잉으로 만나는 '무제와 행위''.

2025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인 '궁동 1987'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이 주관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드로잉 유작을 매개로 20세기 중반, 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살며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열었던 양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술감독을 맡은 남궁운 작가는 "양수아는

삶과 예술을 분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시대의 모서리에 선 채로 끝까지 선을 긋고 색을 올렸다"며 "압박과 외면, 가난과 고독 속에서도 그림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자유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떠나온 거리에서 그는 머무르며 끝내 붓을 놓지 않았다"며 "이번 전시는 그의 아들 양승찬 관장님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크레파스, 연필 등으로 그린 다양한 소묘 작품을 비롯해 미공개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제목 없는 드로잉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라는 콘셉트는 양 화백이 당시 시대를 어떻게 살고 화폭에 담았는지 선을 통해 보여준다.

자화상 작품에선 당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술에 정진했던 예술혼이 느껴진다. 굳게 다문 입술과 무표정한 얼굴, 현상 너머를 응시하는 듯한 눈빛은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예술의 길을 걸었던 순수한 영혼을 보는 듯하다.

다양한 '고양이' 작품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스케치한 그림들이다. 구체성과 추상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선들은 감성의 기운을 전한다.

무제의 드로잉들은 말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작가의 그림에 대한 사유, 삶에 대한 단상 등이 투영돼 있다. 관람객들은 드로잉이라는 '선(線)의 시간'이 환기하는 감성과 시대적 이미지 등을 저마다 심미안으로 느낄 수 있다.



'고양이'

이밖에 젊은 시절의 양 화백의 사진 뿐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매체들도 볼거린다.

남궁운 예술감독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과거의 장상도 단순한 기록도 아니다"며 "한 예술가가 겪어낸 세계,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실의 선 그리고 그 선이 다시 우리 시대의 감각과 만나는 동시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화백 아들인 양승찬 나인갤러리 대표는 "2023년 독일 전시 이후 지역 관람객들에게 드로잉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전시에는 30~60년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라며 "30~40년대 일본 시절, 50년대 목포 시절, 60년대 광주 시절 그랬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장에 들른 화가들은 작품에 드러워진 선(線)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비록 부친은 근현대사의 굴곡으로 고통과 빈한한 삶을 살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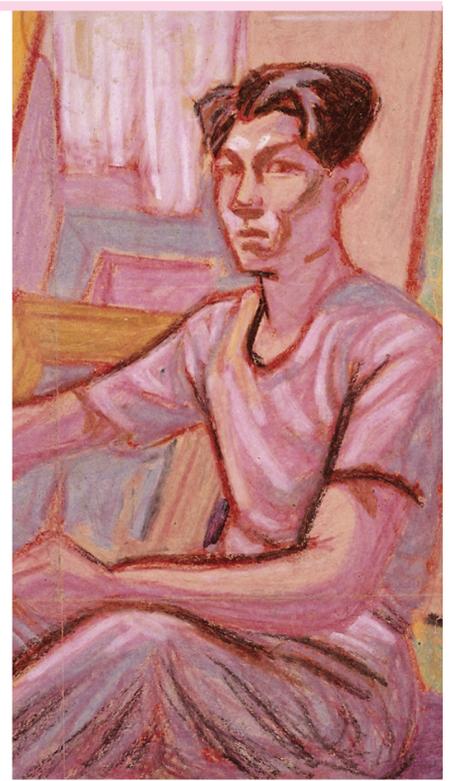


'선인장'

엇에 비할 수 없이 뜨거웠고 순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화백의 작품은 사후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전을 비롯해 2024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한국미술명작' 특별전 등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화상'

컬트영화 거장의 궤적을 되짚다... '데이비드 린치 회고전'



3~30일 광주극장... '레이저 헤드'·'광란의 사랑' 등 상영

실함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 거장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 모은 회고전이 펼쳐진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데이비드 린치 회고전'을 연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린치는 '컬트영화의 제왕'으로 불리는 감독이다. 초현실적 영상미와 독창적인 서사,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서늘한 감각의 연출로 전 세계 영화팬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회고전은 그의 데뷔작부터 대표작까지 총 8편을 선정해 선보인다.

상영작은 컬트영화의 시초로 꼽히는 데뷔작 '레이저 헤드' (1977)를 시작으로, 실존 인물 존 매릭의 이야기를 그린 '엘리펀트 맨' (1980), 청춘의 광기와 욕망을 그린 '블루

벨벳' (1986),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광란의 사랑' (1990) 등이 포함된다.

또 린치의 대표작 중 하나인 '트윈 픽스: 불과 함께 걸어가다' (1992)와 강렬한 이미지와 음향으로 주목받은 '로스트 하이웨이' (1997),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성 로드무비 '스트레이트 스토리' (1999), 그리고 BBC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 (2001)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상영 외에도 특별한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는 25일에는 김병규 영화평론가가 참여하는 '스트레이트 스토리' 시네토크가 열려 작품의 세계관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품별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이번 회고전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 벨벳' 스틸컷

통해 영화 팬들은 린치 감독이 펼쳐온 영상 세계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9000원, 실버 7000원.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국악 무대의 한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국악의 내일을 그리다' 전남도립국악단, 5일부터 남도소리올림터

햇살이 짙어지는 계절, 남도의 국악이 여름 주말을 채운다.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터에서 '그린국악' 시즌3 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의 내일을 그리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시즌은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실험성이 어우러진 무대로 구성됐다.

이번 시즌 첫 공연은 지역 기반의 전통예술단체들이 꾸미는 특별 초청 무대로 문을 연다. 가야금 산조의 분향으로 꼽히는 영암의 전통을 계승해온 문화예술단체 '더현음재'와 전국 각지의 전통 타악을 한데 모은 연희집단 '사도'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25년 가야금 3중주 '신민요 그리고 트로트', 가야금과 마한금이 어우러진 '맥(脈)', 전통연희마당 '판굿, 살판' 등을 통해 전통과 실험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8월 초연되는 대형 창작 국악극 칸타타 '백범 김구'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된 이번 작품은 김구 선생의 생애를 회고 형식으로 풀어내며, 해방 직후의 격동기를 역사적 사건과 함께 병치해 구성했다. 초연은 8월 2일 안코르 공연은 16일에 예정됐다.

또 젊은 국악인들의 창작 무대도 눈길을 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감각을 재구성한 'The wolf of east', 컨템포러리 가야금 시나위 '파랑, 방', 젊은 아쟁 연주자들이 도전하는 컨템포러리 아쟁 산조까지 패기와 실험 정신이 깃든 신작들이 관객을 만난다. 이와 함께 어린이국악단도 무대에 올라 국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

조용한 예술감독은 "더운 여름, 관객들에게 시원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며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동시대적 감각을 더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그려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은 전남도립국악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미술상에 이세현 사진작가

역사적 장소에 깃든 기억 주목... 12월 개인전

제31회 광주미술상에 이세현 사진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택)는 2025년 광주미술상에 이세현 작가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 작가는 역사적 장소에 주목해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기록하는 사진 작업을 이어왔다.

일상이 사건이 되고 사건이 기억이, 그리고 역사가 되는 과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광주미술상은 미술계 선배들이 주시는 의미있는 상이라 꼭 받고 싶었다"며 "수상을 계기로 더욱 작업에 정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작가에게는 개인전(12월 예정)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도록제작비, 광고비, 전시운영 인건비 등 1000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또한 전시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작가와 대화의 장도 함께 지원되며 만 45세가 되면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최근 서류심사와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한 3배수 후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듣고 무기명 투표로 수상 작가를 결정했다.

1995년 첫 창작지원 사업을 시작한 광주미술상은 제1회 미술단체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작가 및 단체를 선정, 시상해왔다.



'경계_5-18민주광장'

한편 오건택 위원장은 "광주미술상이 창작 여건은 어렵지만 작품활동에 매진하는 청년 작가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선배들의 격려

와 수상에 힘입어 더욱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